

조정, 독재권력 형성과 변동의 미시적 기초*

한병진 | 계명대학교

임석준 | 동아대학교

| 국문요약 |

행위자의 조정을 독재권력의 원천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는 권력형성의 비선형성, 권력유지의 용이성, 개인독재화 경향과 정도의 차이 등 독재권력의 형성, 유지, 변동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을 파헤칠 수 있다. 이는 최근 활발히 계발되고 있는 독재정치이론의 정태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케인즈의 미인대회 등에서 나타나는 조정의 이해가 권력투쟁에서 강력하게 작동한다. 다수의 균형점 중 하나의 선택으로 엘리트의 기대가 수렴하면서 선택의 상호의존, 양의 되먹임, 쏠림 등 사회적 임계현상의 특징이 나타난다. 기존 권력관계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우연한 계기로 특정 개인에 대한 엘리트의 선택이 일치하면서 새로운 조정 권력이 발생한다.

주제어 | 독재권력, 조정, 개인독재권력, 여론, 선택의 상호의존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044).

I. 조정으로서의 권력

권력투쟁은 왜 갑작스럽게 결정 나는가? 독재자는 왜 일단 권력을 손에 넣으면 좀처럼 잃지 않는가? 독재정권에서 개인독재권력의 정도는 왜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 학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위자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한다면 우리는 권력 및 권력투쟁과 관련한 이러한 질문들에 보다 나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권력의 원천은 행위자의 조정이다. 사회구성원 중 핵심 대중이 일치단결할 수 있다면 이들 소수는 비조직화된 다수를 지배할 수 있다. 여기서 조직화된 소수는 조정된 상태이다. 즉 배신의 유혹이 없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뭉친 상태이다. 이는 손자가 승리의 원칙으로 강조하는 아전적분(我專敵分) 즉 아군은 뭉치고 적군은 분산된 경우와 흡사하다. 이 경우 아군의 승리는 당연지사이다.

조정게임을 통해 권력을 분석한다면 우리는 권력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주관적 요소를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다. 셸링이 지적했듯이 행위자의 조정은 행위자 상호 간 기대의 수렴에서 비롯된다.¹⁾ 기대의 수렴은 다른 다수의 행위자가 무엇을 믿고 있음을 알려주는 여론을 통해 가능하다. 여론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 신념의 산술적 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심리학이 다루는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론과 사적 신념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지만, 자신을 제외한 사회구성원 다수가 믿고 있다는 오해로 인해 다수의 사적 신념과 괴리를 보이는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치알디니 2002; Miller, Monin, Prentice 2000; Myers 2010, 460-461). 사적 신념과 관계없이 기대의 수렴과 조정을 가능케 하는 여론이 바로 권력의 원형질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정게임을 통해 권력을 재조명할 경우 우리는 흠의 언명을 보다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쟁을 다루는 경우 권력을 주로 물리적 능력으로

1) 다양한 조정의 상황에서 공유된 주관적 신념의 중요성과 작동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 Schelling (1960, Ch. 3), Lewis(1969), Chwe(2001)을 참조할 수 있다.

규정하고 물리력의 비율로 전쟁의 승률을 계산하고 있다(Hirschleifer 2001). 이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의 유명한 명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데이비드 흄은 권력의 원천은 여론이라고 주장한다(Tullock 1987). 권력은 지배의 대상에게 야수적이지만 권력집단 내부에는 폭력 대신 정연한 질서가 존재한다(Hume 1748). 그리고 이 질서는 권력 집단 내부 구성원 상호 간의 기대의 수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권력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간주관적(inter-subjective) 기대에서 발생한다. 나 자신만의 주관적 기대를 넘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대한 기대를 통해 행위자는 누가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믿는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대한 나의 기대는 다시 관찰 대상자의 기대를 강화한다. 이렇듯 권력의 소재에 대한 기대는 상호의존적, 자기강화적이다. 이러한 기대의 수렴을 통해 권력자에 대한 엘리트의 조정이 발생한다. 엘리트의 조정이 특정 개인으로 쏠리면서 그 개인은 권력을 갖게 된다. 요약하면 권력의 원천은 엘리트의 여론이며 여론은 엘리트의 조정을 가져온다(한병진 2011, 270). 이 결과 권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간주관적 조정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내가 보는 상황과 상대방이 보는 상황 간의 간극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반면 상대를 자신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는데, 심리학에서 이를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사람들은 비교적 자신은 법을 잘 지키지만, 상대적으로 타인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²⁾ 미국 대학 교수들 가운데 94퍼센트는 자신이 평균 이상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Heath 2010, 113-115).

다양한 착각이 지배하는 간주관적 조정게임의 권력투쟁은 사실상 케인즈의 미인대회를 닮았다. 미인대회의 상금은 미인을 맞추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2)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법질서와 준법정신과 관련해 ‘본인이 법을 잘 지킨다’는 평가는 65.3%로 높았지만, ‘다른 사람이 법을 잘 지킨다’는 평가는 34.3%였다. 한편 ‘다른 사람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평가는 26.4% 였지만, 반대로 자신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 검색일: 2013. 12.30).

심사위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참가자가 미인으로 선정된다. 이 경우 상금을 원하는 심사위원은 자신의 미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권력투쟁에서도 다수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켜야 승리자의 편에 설 수 있다. 승리자의 편에 서고 싶은 행위자는 다른 사람의 여론에 주목한다. 여론을 따라 승리자를 제대로 맞출 경우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지배자를 중심으로 뭉친 엘리트의 조정이 반드시 독재자의 무한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정게임의 특성상 엘리트의 조정은 다양한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독재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엘리트가 합의할 경우 제한된 독재가 발생한다. 이렇듯 조정의 균형점이 어디에 안착하는가에 따라 독재자의 권력 정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국왕의 권력남용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공유한 엘리트의 조정으로 의회제도가 세워지고 국왕의 권한이 제한되었다(North and Weingast 1989; Weingast 1997).

여기서 우리는 엘리트의 조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첨언코자 한다. 첫째, 독재자의 선택과 개인독재권력의 정도를 규정하는 엘리트의 조정은 각 사회가 물려받은 다양한 역사적 우연에 크게 좌우된다. 사회의 역사적 유산은 행위자의 일치된 선택을 위한 공유된 믿음과 초점을 제공한다(Myerson 2004). 역사적 우연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본 논문의 사례분석 대상인 소련의 경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독재자 사후 사회적 분위기 등이 엘리트의 상호기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외국의 압력과 지원 역시 주요한 초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통적 관습, 과거의 공식적 규칙, 정치적 반대의 경험, 대중의 정치적 신념 등도 엘리트 사이에 공통의 믿음을 형성한다.

둘째 우리는 공고한 독재권력을 지탱하는 조정이 동일한 사적 신념에 기초한 엘리트의 일심동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 다원적 무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적 신념의 동일성과 관계없이 조정의 이해관계로 인해 엘리트는 서로 힘을 합친다. 따라서 겉으로 매우 공고한 독재권력에서 엘리트의 동상이몽은 가능하다. 이는 북한처럼 개인독재권력이 강력한 정권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권력투쟁 과정에서 사적 신념이 아니라 공적 여론이 중요하므로 선호위장을 통한 다양한 전략적 행위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권력을 조정으로 바라볼 경우 가질 수 있는 경험적 이론적 이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엘리트의 조정을 권력의 원천으로 권력투쟁을 분석할 경우 독재정치의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단초를 확보할 수 있다.

독재정치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택권 집단이론(selectorate theory)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선택권 집단과 승리연합의 비율을 핵심 변수로 해서 독재정권의 안정성과 정책을 분석한다(Bueno de Mesquita et. al. 2003). 또 다른 독재정치에 대한 야심에 찬 분석은 중위자 투표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중위자의 위치에 따라 엘리트와 대중의 선택이 좌우되고 독재정권이 유지되거나, 혁명 혹은 민주화가 발생한다(Acemoglu and Robinson 2006). 미시 경제학의 한계효용론을 이용하여 당근과 채찍이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독재정치를 분석하는 시도 역시 주목받고 있다(Wintrobe 1998). 이러한 연구 덕분에 독재정치 연구는 이제 민주주의 정치과정 분석만큼이나 세련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독재자의 개인독재권력의 흥쇠와 권력투쟁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곁여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제공하는 약속의 문제(commitment problem)라는 주제를 통해 독재자와 엘리트의 갈등을 다루는 시도가 있지만, 이 역시 독재권력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대신 권력분담체제의 형성과정에 주목하고 있다(Magaloni 2008).

그런데 엘리트 조정의 결과로 독재권력이 형성된다고 이해할 경우, 독재자의 권력이 제한되거나 공고화되는 경우를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독재권력 정도는 엘리트 조정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균형점 중 하나를 반영한다. 즉 엘리트 조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독재자의 개인독재권력이 변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4장에서 우리는 소련 정치에서 개인독재권력이 변화하는 추이를 엘리트 조정으로 설명코자 한다. 스탈린의 전체주의 개인독재, 흐루시초프의 당을 통한 일인독재, 브레즈네프의 집단지도체제는 소련의 엘리트의 간주관적 합의에 따른 정치적 결과임을 보여주고자 한다.³⁾ 다음 장에서는 먼저 조정의 과정

3) 본 논문의 사례분석 대상은 공산독재국가인 소련이지만 과거 한국처럼 선거가 작동하는 선거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엘리트의 조정을 통한 독재권력의 흥과 쇠를 논할 수 있다. 선거권위주의 정권의 경우 권력에 접근하는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선거의 제약으로 인해 공산독재와 달리 대중의 지지가 엘리트의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1공

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과 사회심리학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동원한다.

II. 조정을 통해 본 권력의 형성과정: 선택의 상호의존성과 양의 되먹임

다수의 신념과 태도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신념이 수렴하면서 종종 극단적 사회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은 사회 영역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투기활동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네덜란드 튜립 투기에서부터 현재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에 이르기까지 재화의 비정상적 가격 상승은 다수의 기대가 수렴하면서 발생한다.

범죄의 확산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 검거될 확률을 주관적으로 계측한다. 만약 많은 이들이 확률을 낮게 잡아 범죄에 뛰어들었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의 주관적 신념은 객관적으로 뒷받침 된다.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제 법을 지키는 시민들은 그 지역을 떠난다. 이 결과 범죄인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잠재적 범죄자의 주관적 믿음에서 시작한 양의 되먹임으로 지역사회는 범죄소굴로 전락한다. 범죄확산의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범죄율은 경찰력 정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하는 대신 급작스럽게 증감한다(Kahan 1997).

신문학, 사회학, 사회심리학에서는 다수의 무지(pluralistic ignorance)가 자기충족적 예언을 창출한다고 설명한다(Noelle-Neumann 1984). 여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을 낳으면서 사적 신념과 공적 여론 사이에 심각한

화국, 3공화국의 경험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집권자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확고한 경우 엘리트는 그의 뒤에 줄을 선다. 이에 힘 입어 대통령은 헌법을 마음대로 고쳐 자신의 개인독재권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1공화국 말기처럼 대중의 지지가 사라질 경우 엘리트의 지지가 분산되면서 독재권력은 심각히 약해진다(한병진 2010).

괴리가 발생한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자신은 내심 독재자를 증오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지지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러한 오해로 인해 각자는 공공연히 독재자를 찬양하는 열렬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 각자의 공적 위선은 여론에 대한 다수의 오해를 더욱 심화시킨다.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다수의 사적 신념과 공적 여론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 아마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북한 사회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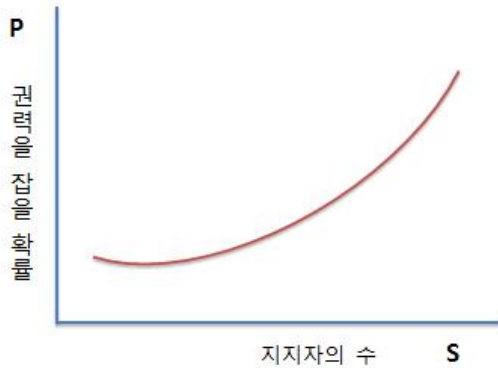
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재자에 대한 지지에까지, 개인의 선택은 순차적 조정 과정이다(Granovetter 1978). 순차적 조정과정에서 눈에 띄는 특징적 양상은 선택의 상호의존과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현상이다. 권력을 탄생시키는 조정 역시 순차적이고 자기충족적, 자기강화적이다. 외부적 충격에 의해 촉발된 변화가 내재적 증폭 과정을 겪는 현상을 양의 되먹임이라 할 수 있다. 시점 t 에서의 증가가 시점 $t+1$ 의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전파와 다르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의 변화 양상이 비선형적이기 때문이다(Biggs 2003). 이러한 양의 되먹임은 물리적 세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석이 자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열로 인해 자석의 원자가 무질서하게 배열되면 자석은 자성을 잃는다. 이후 열이 식으면서 몇몇 원자의 배열이 우연히 일치하고 이들의 자성이 다른 원자의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성은 더욱 커지고 더욱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원자가 일렬로 배열된다.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상하는 권력게임 역시 이러한 양상과 흡사하다. 권력을 창출하는 조정은 일시에 모든 행위자가 선택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대부분의 힘겨루기가 그렇듯 초기 권력투쟁 과정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안개정국이다. 이 상황에서는 한쪽으로 행위자의 선택이 쏠리기보다는 양쪽으로 분산되어 세력균형이 발생한다. 엘리트는 보다 믿음직스럽고 보다 자신의 선호와 가까운 야심이 진영에 합류하여 다른 세력에 대항한다. 이 상황에서 권력의 독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권력투쟁이 충분히 진행되면 다수의 세력은 양분된다. 이런 와중에 우연한 계기에 주요한 엘리트의 선택이 한 쪽으로 몰리면 이는 다른 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역사의 대표적 사례로 왕건과 견훤의 권력투쟁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당 기간 두 세력이 대치하다 견훤을 비롯한 후백제 핵심 세력의 일부가 왕건을 선택하면서 권력투쟁은 빠르게 그 종

지부를 찍었다. 이들의 선택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호족세력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선택이 선택을 낳으면서 권력 축적의 가속도가 붙었다. 이 결과 왕건으로 호족이 쓸렸고 권력투쟁은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을 잡을 확률과 엘리트의 선택 사이에 밀접한 내인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승산이며 승산은 엘리트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높은 승산은 엘리트의 선택을 유인하고 이는 다시 승산을 높여 엘리트의 선택을 유인한다. 이로써 양의 되먹임이 발생한다. 이러한 작동기제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래프 1〉 지지자의 수(S)와 권력을 잡을 확률(P)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을 잡을 확률은 체증곡선의 양상을 보인다. 즉 처음에는 지지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느리게 상승한다. 하지만 일정한 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급격히 상승한다. 이를 통해 권력을 형성하는 조정이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양의 되먹임이 작동하기 때문에 권력투쟁의 승패가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는 대신 일방의 완전한 승리로 결정 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가격의 예를 들어 보자.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요가 줄어들어 다시 가격이 낮아진다. 하지만 시장 영역에서도 권력과 마찬가지로 초기 수요가 더욱 많은 수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Arthur 1994). 네트워크

크 상품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초기 여러 대안 중 우연한 계기로 몇몇 사용자가 윈도우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용이한 호환을 원하는 다른 소비자 역시 동일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윈도우 운용체제와 마찬가지로 권력 역시 일정한 수가 지지를 할 경우 권력자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기는커녕 더 많은 지지로 연결된다.

특히 지배자로의 조정의 필요성은 지배자의 정치적 독점성 정도에 좌우된다. 정치적 독점(political monopoly)은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희소자원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Medina and Stokes 2007). 정치적 독점이 높을수록 사회 구성원은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지배자로 조정이 신속하고 공고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권력의 독점성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도입되면서 약화된다.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재기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법치를 통해 권력의 폭압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면서 정치행위자가 지배자로 조정할 이해는 약해진다. 다음 선거에서 재기를 노릴 수 있고 그 동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의 되먹임을 보이는 위의 그래프에서 주목할 점은 권력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소수의 핵심세력이다. 위험한 혁명운동에서 전위세력이 필요하만큼 승산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야심가를 중심으로 뭉치는 선도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도전의 기회비용이 큰 독재정권 하에서 도전자가 왜 쉽게 나타나지 않는지를 설명해 준다. 단시간 내 관망세력의 선택을 유인할 정도의 충분한 세력이 뭉치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도전자의 시도는 실패한다.

권력을 조정의 결과로 인식할 경우 우리는 권력이 탄생하는 과정의 우연성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권력을 창출하는 조정게임은 잠재적으로 무수한 균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이 사소한 차이와 동일성으로 쉽게 뭉치고 대립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무 의미 없는 색깔 표시만으로 집단 구성원은 편을 가른다(Hammond and Axelord 2006). 사회심리학의 다양한 실험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어떠한 계기로 집단이 형성되면 집단 구성원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뭉칠 조정의 이해를 가진다. 누가 주목을 받는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폭력의 능력이 중요했던 과거의 경우 큰 키와 덩치 등 신체적 특징이 주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Myers 2010).

집단이 조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뭉치게 되면 이는 양극화로 이어진다. 양분화의 경향은 단순다수제가 양당제로 이어지는 이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에서 주민의 전략적 투표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호에 보다 가까운 쪽으로 구성원이 헤쳐 모인다. 자신의 선호도와 후보자의 승산을 고려한 유권자의 선택은 다수 후보자에서 단 두 명의 후보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Cox 1997). 이렇게 양분된 집단은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를 비롯한 다양한 인식 편향을 겪으면서 갈등을 첨예화한다. 보다 극단적인 의견을 지닌 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러한 의견에 개인은 순응적 태도를 보여 복종하기도 하고 편향적인 인식을 통해 극단적 의견에 자신의 사적 신념을 일체화시키기도 한다(Aronson 2010; Myers 2010). 이러한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의 동질성이 높아지고 외부의 적을 매우 이질적 집단으로 인식한다. 이는 집단 갈등의 경험을 통해 더욱 확증된다.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다투는 게임에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면서 권력투쟁은 매우 격렬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인간의 순응성과 다수의 무지는 조정의 균형점을 더욱 극단적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극단적 의사를 지닌 소수의 목소리 큰 주장과 이의 반대편 주장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시작된다. 이러한 양극화는 중도적인 참여자의 동참에도 누그러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다원적 무지로 인해 중도 성향의 참여자가 극단주의자의 선호를 자신의 공적 선호로 채택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다수의 선호가 중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발생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속담처럼 극단적인 이해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다수가 순응한다. 집단 갈등의 소용돌이에 개인의 선호는 묻혀버린다(Miller, Monin, and Prentice 2000).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지배자의 탄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 사회집단 내에서 다수의 야심가가 등장한다. 조정의 이해를 지니고 있는 엘리트는 이들이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양분된다. 승산과 보상의 신뢰성이라는 경제적 이해와 함께 사회심리학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증거, 다수의 무지, 집단극화 역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우연한 계기로 한 쪽이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이는 더 많은 지지자의 규합으로 이어진다. 기대와 선택이 더 많은 기대와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주요 정치세력

은 세력균형 대신 편승의 전략을 채택한다. 결국, 권력의 독점과 공고화가 발생한다.

Ⅲ. 권력의 유지: 조정의 리더십

마키아벨리(1998)가 군주론에서 세습군주는 신생군주에 비해 권력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한다. 무리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충분히 근면한 세습군주는 불가항력의 사태가 아닌 이상 권력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갈파한다. 기대의 수렴에 따른 조정으로 권력을 이해할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세습군주에 대한 복종이 확고한 여론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군주의 명령에 따른다는 조정의 균형으로부터 이탈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세습군주가 유리한 이유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권력을 잡기 전 야심가는 엘리트의 지지를 유인하기 위해 보상을 약속한다. 자신의 이익을 신장코자 하는 엘리트의 선택은 야심가의 승리가가능성과 함께 약속의 신뢰성에 바탕 한다. 엘리트는 야심가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보상을 원한다. 따라서 언행, 태도, 정책 등에서 야심가의 약속이 믿을만하다고 생각될 때 그에 동참한다(Myerson 2008). 신뢰성이 약한 야심가는 엘리트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이는 다시 야심가의 승리가가능성을 저하시킨다. 후삼국 시대 궁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궁예가 자신의 부하를 마음대로 다루고 심지어 무자비하게 죽였다. 이를 경험한 호족세력은 궁예를 버리고 왕건을 선택했다.

하지만 야심가는 권력을 잡고 난 이후 자신을 지지한 엘리트의 일부를 팽한다. 이는 권력을 잡을 때보다 권력을 유지할 때 필요한 엘리트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를 Myerson(2004)은 치킨게임의 논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핵심요소는 게임 참여자 모두가 지배자의 지시에 복종한다는 여론이다. 이 여론은 조정자로서 지배자의 권력 원천으로 작용한다.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믿

을 만한 경우 다른 쪽의 합리적 선택은 양보이다. 만약 양보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양보했을 때보다 더 큰 피해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지배자의 단순한 지명은 행위자의 복종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각 행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지배자의 결정을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배자의 지시는 특별히 물리적 강제 없이도 쉽게 지켜진다. 말 한마디만으로 치킨게임 상황에서 지배자는 조정을 강제할 수 있다.

이렇듯 일단 지배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행위자는 자신의 조정 권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배자의 능력에서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만큼이나 분명한 소통능력이 중요하다(Dewan and Myatt, 2007; 2008). 애매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의사가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행위자의 복종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는 소통만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피지배자를 설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만으로 지배자는 집단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지배자라는 위치가 바로 공동의 인식을 양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한비자가 말하는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한 군주의 유리함이 여기에 있다. 모두가 군주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공동의 인식(common knowledge) 하에서 군주의 한 마디는 새로운 조정으로 집단 구성원을 몰아가는 힘이다.

여기서 지배자에 대한 엘리트의 충성심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필요한 요소는 지배자의 명령을 다른 엘리트가 따를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이다. 지배자의 명령을 추종하겠다는 충성심과 상관없이 다른 엘리트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조정할 필요성으로 인해 엘리트는 지배자의 명령을 따른다.

IV. 사례연구: 소련 엘리트의 조정과 총서기장의 개인독재권력

앞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엘리트의 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

라 독재자의 개인권력 정도가 정해진다. 엘리트의 기대가 수렴되는 과정에서 명시적 헌법 조문, 관습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혹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일치된 반성에서 기대의 수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련의 총서기장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는 엘리트의 조정이 특정 균형점에 안착하면서 각기 다른 정도의 독재권력과 정치적 운명을 경험한다. 소련 공산당 시절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시대별로 뚜렷이 차이가 나는 엘리트의 합의 혹은 묵인이 있었다. 스탈린 시대에는 개인우상화에 대한 지지 혹은 묵인, 흐루시초프 시대에는 물리적 안전에 대한 엘리트의 공감대,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코자 하는 정치적 안전에 대한 엘리트의 분명한 합의가 존재했다. 이러한 엘리트 내부의 여론과 조정은 공산당의 제도화와 독재자의 개인권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아래에서 각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변곡점에 위치한 흐루시초프 시대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분석이 소련정치 연구자가 대체로 동의하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실제로 총서기장이 바뀔 때 마다 이에 맞추어 소련정치가 변했다. 소련정치 연구는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통치기간 동안 발생한 거시적 정치변동의 이유로 소련의 근대화 수준 혹은 리더십 스타일 등을 들고 있다(Breslauer 2002). 우리는 기존 연구가 밝히고 있는 소련의 거시적 정치변동을 위에서 제시한 이론 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코자 한다(표 1).

〈표 1〉 엘리트의 조정과 소련의 정치변동

	엘리트 공동의 인식	엘리트의 조정균형	개인독재화 정도	정권형태
스탈린	개인우상화	독재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	공산당의 붕괴	개인독재 전체주의
흐루시초프	물리적 안전에 대한 요구, 무자비한 국가폭력 사용 금지, 당제도의 복원, 집단지도에 대한 뚜렷한 합의 부재	당중앙상임위원회를 통한 권력투쟁	당을 통한 일인독재, 하지만 당엘리트의 집단적 도전에 취약	과도기적 후기전체주의
브레즈네프	정치적 안전에 대한 요구, 집단지도에 대한 합의	당정치국을 통한 협의적 당 운영	공산당의 제도화	조합주의적 후기전체주의

먼저 스탈린 시대를 살펴보자. 독재자 스탈린의 무오류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독재자의 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엘리트의 집단능력은 붕괴한다. 여기서 개개인이 실제로 독재자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대안적 정당화가 금지되고 공개적으로 독재자 개인을 찬양한다면 독재자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합의가 발생할 수 없다. 개인우상화로 인해 엘리트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뭉칠 수 있는 조정능력을 상실한다. 독재자가 개인독재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숙청을 공공연히 자행하더라도 당엘리트는 이에 속수무책이다. 매일 매일 독재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엘리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각자는 다른 엘리트가 독재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엘리트의 전략은 당연히 독재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다. 이는 다시 다른 관찰자의 믿음을 공고히 한다. 이렇듯 개인우상화가 강요하는 공개적 충성경쟁이 자기강화적으로 발전하면서 엘리트의 기대는 독재자의 절대 권력으로 수렴한다.

엘리트의 조정이 독재자의 절대 권력으로 수렴하면서 스탈린 시대 소련 공산당은 작동을 멈추었다.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상임위원회를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이 제도화될 경우 엘리트는 독재자의 결정에 대해 집단적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조정의 기회를 가진다. 이는 독재자의 권력을 제약한다. 이러한 이유로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독재자는 정부나 당의 의사결정제도의 제도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당연히 스탈린 시대 소련 공산당은 스탈린 개인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필요에 따라 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당을 무시하기도 했다. 13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당대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1939년 18차 대회를 끝으로 1952년 19차까지 당 대회는 소집되지 않았으며 중앙상임위원회는 매우 가끔 회합을 가질 뿐이었다. 스탈린은 정치국을 소집하여 명령을 내리는 대신 어떠한 공식적 결정이나 토의 없이 자신의 수하 중 한 명에게 자신의 명령을 하달했다. 스탈린은 NKVD라는 무소불위의 경찰조직을 이용하여 절대다수의 당원에게 공공연히 테러를 가했다(Hough and Fainsod 1979).

스탈린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하면서 소련 엘리트는 새로운 합의를 위한 전략적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스탈린 사망 직후 누구도 계승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지 못하는 안개정국 하에서 흐루시초프가 조금씩 자신의 입지를 확장하는데 성공했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독재와 대숙청의 공포정치가 막을

내리고 공산당이 부활하고 집단지도체제로 발전하는 소련 공산정치의 과도기를 이끈 인물이며 흐루시초프의 소련은 개인독재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도정에 존재한 중간시대 성격의 정권이었다. 1953년에서 1957년 권력투쟁기 동안 형성된 개인우상화와 테러에 반대하는 엘리트의 공감대는 제 2의 스탈린의 탄생을 봉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 엘리트는 총서기장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조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총서기장이 당을 흔들 경우 다른 엘리트의 반대를 확신한 개개인이 총서기장에 반대할 수 있을 정도의 공동 인식은 부재했다.

스탈린 사망 이후 엘리트가 각축전을 벌이는 와중에 소련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상임위원회가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전면에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당의 제도화 정도가 총서기장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고 집단적 협상과 합의에 기초해 당과 국가를 운영하는 집단지도체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즉 공산당이 작동하는 동시에 흐루시초프의 개인독재권력 역시 상당히 강한 과도기적 상황이었다. 실제 흐루시초프 시대 내내 소련 정치는 혼돈과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스탈린 사망 직후 집단지도체제의 틀 속에서 엘리트는 이합집산을 통해 세력균형의 정치를 펼쳤다. 하지만 권력투쟁에서 흐루시초프의 승리가 명확해지면서 세력균형 대신 엘리트는 흐루시초프 뒤로 줄을 섰다(Roeder 1993). 이후 개인독재권력을 강화한 흐루시초프의 과도한 개혁 추진과 권위의 상실, 엘리트의 묵종과 도전이라는 역동적인 정치상황이 발생했다(Hough and Fainsod 1979; Sakwa 1989).

사실상 흐루시초프의 개인적 부침은 엘리트의 공동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 스탈린의 죽음과 함께 무차별적인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를 금지해야 한다는데 대해 엘리트의 강력한 합의가 있었다. 이 합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당시 경찰조직의 수장인 베리아의 체포와 처형이었다. 이와 함께 경찰조직은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MVD)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부서(KGB)로 분할되었다.

물리적 안전에 대한 합의와 함께 당을 통한 통치에 대한 합의가 후계자 선정을 둘러싼 권력투쟁 과정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공산당이 정치의 전면에 복원되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1957년 반당위기(anti-party crisis)였다. 말렌코프, 몰로토프, 가가노비치는 점점 강력해지는 흐루시초프를 견제하고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선제공격을 시도했다. 1956년 12월 CC Plenum은 중앙 국가 기구의 권한확대를 통해 흐루시초프를 견제코자 했다. 당에 대항하여 국가를 키움으로써 제 1 비서의 권력을 제한코자한 노력이었다. 보다 구체적 조치로 1957년 2월 12일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는 국가경제위원회(State Economic Commission)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다음 날 바로 흐루시초프의 반격으로 그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중앙상임위로부터 중앙정부의 주요 경제관련 부서를 철폐하는 결정을 받아들였다. 중앙부처의 경제적 관할권을 새롭게 신설된 지방 경제 협의체(regional economic council, sovnarkhoze)로 이전했다. 이는 가히 혁명적인 조직 개편이었다. 1957년 2월 정부조직 개편 안(案)에서 패배한 도전세력은 1957년 6월 자신들이 다수를 점한 정치국의 결정을 등에 업고 흐루시초프의 사임을 압박했다. 이들의 공격에 흐루시초프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중앙상임위원회라고 고집했다.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듯이 흐루시초프는 “중앙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나는 임명되었으며 오직 이 회의를 통해서만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Hough and Fainsod 1979). 이런 와중에 주코프 장군이 마련한 항공편으로 광활한 소련 전역에 흩어져 있는 중앙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속속 모스크바로 결집했다. 총 309명의 위원 중 압도적 다수가 흐루시초프를 지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련 공산당은 최고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중앙상임위원회의 권한을 확인했고 그 선례를 만들었다. 역설적이게도 1957년 흐루시초프의 손을 들어준 중앙상임위원회가 1964년 그의 축출을 결정했다.

물리적 안전과 공산당의 정치적 기능 복원에 대한 엘리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총서기장 권력의 한계치에 대한 엘리트의 합의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독재자의 권한과 엘리트의 특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흐루시초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의거하여 당을 심하게 흔들었고 당 엘리트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관직의 순환, 당의 조직적 분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당 흔들기는 공산당원의 정치적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엘리트 전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서로에게 분명해졌고 흐루시초프식 당 흔들기에 대한 반대가 엘리트의 공동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마침내 1964년 안정과 질서를 명분으로 정치, 경제, 군, 중앙, 지방 관료 모두가 뭉쳐서 흐루시초프를 몰아내었다.

호루시초프의 개인독재권력의 정도는 당시 엘리트 조정의 균형점을 반영한다. 전체주의 개인독재가 막을 내리면서 당을 복원하는데 모든 엘리트가 동의했다. 하지만 당의 복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부재했다. 불완전한 당의 제도화로 인해 소련 공산당은 제 1 비서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 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조정하지 못한 엘리트 집단이 계획경제하에서 정치경제적 희소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당 수장에게 줄을 서는 것은 당연했다. 헌법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이를 집행할 사법기구가 부재한 독재정치에서 독재자의 힘은 오직 대항세력의 힘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엘리트 사이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1950년대 소련 독재자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공산당 엘리트의 합의는 물리적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는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물리적 안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료적 지위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마침내 정치적 안전 보장과 집단지도에 대한 공동 인식이 엘리트 사이에 일어난다. 간부에 대한 존경이라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할 정도로 엘리트가 정치적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달성하면서 소련 총서기장의 독재권력은 상당히 제한받았다. 바로 이러한 공동 인식이 확산되면서 독단적 통치자였던 호루시초프가 쫓겨나고 브레즈네프의 타협과 흥정의 정치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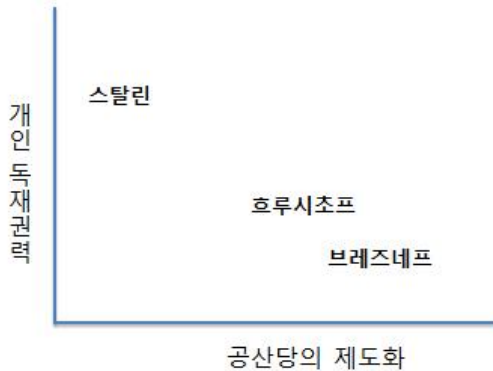
호루시초프의 반엘리트적 리더십을 경험한 브레즈네프 시기 소련 공산당 엘리트의 절대적 관심은 당-국가에서 자신이 점하고 있는 정치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전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시기는 한마디로 안정과 안전으로 표현된다. 공산관료의 진급과 승원이 규칙적이고 정규적으로 이루어졌고 간부에 대한 존경이 핵심 정치구호로 주창되었다. 브레즈네프의 포용과 타협 정책은 공산당 조직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했다(Breslauer 2002; Hoffmann and Laird 1984).

정치적 안전과 집단지도체제로 엘리트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독재자의 개인독재권력은 더욱 제한되었다. 이 결과 조합주의라 명명될 정도로 정부정책은 당 정군 내 주요 조직 대표자의 협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 변화가 정치국 구성원의 확대였다. 1973년 소련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 조직인 정치국은 비밀경찰의 수장, 국방장관, 외무부장관을 포함하는 등 거의 모든

주요 관료조직의 수장을 포괄하였다(Bunce 1983). 정부정책은 이들의 타협과 흥정의 산물이었다. 브레즈네프는 전임자와 달리 공산당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었다. 핵심 당직자의 교체비율은 낮았으며 새로운 업무가 갑작스럽게 부과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듯 정치적 안전과 조합주의적 국가 운영에 대한 엘리트의 합의는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의 독재권력을 크게 제약했다. 고르바초프가 시장개혁을 위해 정치개혁이라는 강수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개인우상화를 방조하고 묵인한 스탈린 시대 엘리트, 개인우상화를 금지하고 신체적 안전에 대해 공감했던 흐루시초프 시대 엘리트, 정치적 안전과 집단지도 체제를 합의한 브레즈네프 시대 엘리트와 함께 소련에서 독재자의 개인독재권력 정도와 정치제도는 변했다. 스탈린의 개인독재 전체주의, 흐루시초프의 과도기적 후기전체주의, 브레즈네프의 조합주의적 후기전체주의가 탄생했다. 특별히 소련정치의 변곡점에 위치한 흐루시초프의 과도기 정권은 엘리트의 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독재자의 권력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래프 2).

〈그래프 2〉 개인독재권력과 당의 제도화 정도



V. 결론

조정게임을 통해 독재권력을 조명할 경우 우리는 독재권력의 형성과 유지를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케인즈의 미인대회, 혹은 윈도우 시스템의 도입 등에서 나타나는 조정의 이해가 권력투쟁에도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의 이해관계로 인해 다른 이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는 여론이 독재권력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다수의 균형점 하에서 여론의 도움으로 하나의 선택으로 기대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택의 상호의존, 양의 되먹임, 쏠림 등 사회적 임계현상의 특징이 나타난다(Buchanan 2001). 기존 권력관계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우연한 계기로 특정 개인에 대한 엘리트의 선택이 일치하면서 새로운 조정 권력이 발생한다. 엘리트의 선택과 야심가의 승산이 상호작용하면서 더 많은 엘리트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양의 되먹임이 발생한다. 이 결과 쏠림이 발생하고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한다.

역동적 조정과정으로 권력투쟁을 고찰할 경우 정치현상의 비선형적 역동성을 보다 세부화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변동에 대한 설명은 독립변수인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간과하였다. 그런데 정치적 현상은 대부분 집단행동의 결과이며, 간주관성, 선택의 상호의존과 양의 되먹임을 통해 집단적 선택의 역동성 그 자체가 이해될 때 정치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완전해진다.

권력을 장악한 야심가의 명령은 이제 초점의 역할을 한다. 지배자의 지시는 엘리트의 순종으로 이어진다. 상대방이 지배자의 명령에 따른다는 믿음은 지배자의 권력 유지의 근본적 기초이다. 이 믿음으로 인해 심지어 숙청 역시 어렵지 않게 달성된다. 여기서 엘리트 개인의 충성도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더욱이 엘리트의 명시적 합의가 부재할 경우 다수의 무지로 인해 엘리트는 조정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제 독재자는 조정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손쉽게 확대한다.

【참고문헌】

- 로버트 치알디니, 이현우 역, 2002. 『설득의 심리학』. 서울: 21세기북스.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2』.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
- 한병진. 2010. “한국 선거권위주의의 정치동학.” 『대한정치학회보』 17집 3호, 265-284.
- 한병진. 2011. “비교정치이론에서 조정게임의 기여와 과제: 거시 역사 및 제도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4권 2호, 267-284.
- Acemoglu, Daron, James Robinson. 2006.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thur, Brian W. 1994. *Increasing Returns and Path Dependence in the Economy*. Michiga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iggs, Michael. 2003. “Positive Feedback in Collective Mobilization: The American Strike Wave of 1886.” *Theory and Society* 32, No. 2, 217-254.
- Breslauer, Goerge W. 2002. *Gorbachev and Yeltsin as Lead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chanan, Mark. 2001. *Ubiquity: Why Catastrophes Happen*.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Bueno de Mesquita, Bruce, Alastair Smith, Randolph M. Siverson, James D. Morrow. 2003.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 Bunce, Valerie. 1983. “The Political Economy of Brezhnev Era: The Rise and Fall of Corporat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3, No. 2(April), 129-158.
- Chwe, Michael Suk-Young. 2001. *Rational Ritual: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x, Gary W. 1997. *Making Votes Cou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wan, Torun, and David P. Myatt. 2007. “Leading the Party: Coordination, Direction, and Communic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 No. 4, 827-845.
- Dewan, Torun, and David P. Myatt. 2008. “The Qualities of Leadership: Direction, Communication, and Obfusc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 No. 3, 351-368.
- Granovetter, Mark. 1978. “Threshold Models of Collective Behavior.”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No. 6, 1420-1443.

- Hammond, Ross and Axelord, Robert. 2006. "Evolution of Ethnocentr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 No. 6, 926-936.
- Hardin, Russell. 1991. "Hobbesian Political Order." *Political Theory* 19, 156-180.
- Hardin, Russell. 1996. *One for All: The Logic of Group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ath, Chip and Dan Heath. 2010. *Switch: How to Change Things When Change in Hard*. London: Random House Business Books.
- Hirschleifer, Jack. 2001. *The Dark Side of For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n, Erik and Robbin F. Laird(eds.). 1984. *Soviet Polity in the Modern Era*. New York: Aldine de Gruyter.
- Hough, Jerry, and Merle Fainsod. 1979.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me, David. 1748. "Of the First Principles of Government." In *Essays, Moral and Political*. London: Cadell.
- Kahan, Dan M. Kahan. 1997. "Social Influence, Social Meaning, and Deterrence." *Virginia Law Review* 83, No. 2, 253-323.
- Lewis, David. 1969. *Conven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achiavelli, Miccolo. 1998[1513]. *The Princ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Translated by Harvey C. Mansfield.
- Magaloni, Beatriz. 2008. "Credible Power-Sharing and the Longevity of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 No. 4/5(April), 715-741.
- Medina, Luis Ferdinando and Susan C. Stokes. 2007. "Monopoly and Monitoring: An Approach to Political Clientelism." Herbert Kitschelt and Steven Wilkinson, eds. *Patrons, Clients, and Polic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8-83.
- Miller, Dale T., Benoit Monin, and Deborah A. Prentice. 2000. "Pluralistic Ignorance and Inconsistency Between Private Attitudes and Public Behaviors." Deborah Terry, ed. *Attitudes, Behavior, and Social Context: The Role of Norms and Group Membership*.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95-113.
- Myers, David G. 2010. *Social Psychology*. NY: McGraw-Hill.
- Myerson, Roger. 2004. "Justice, Institutions, and Multiple Equilibria."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 No. 1, 91-107.

- Myerson, Roger. 2008. "The Autocrat's Credibility Problem and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 No. 1, 125-139.
- Noelle-Neumann, Elisabeth. 1984. *The Spiral of Silence: Our Social Sk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rth, Douglass and Barry Weingast. 1989.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9, No. 4(December), 803-832.
- North, Douglass, Wallis, John Joseph, and Weingast, Barry. 2009. *Violence and Social Orders: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Recorded Hum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eder, Philip. 1993. *Red Suns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kwa, Richard. 1989. *Soviet Politics in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Schelling, Thomas. 1960.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ullock, Gordon. 1987. *Autocracy*.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
- Weingast, Barry. 1997.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No. 2, 245-263.
- Wintrobe, Ronald.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14.02.24. 심사일: 2014.04.13. 게재확정일: 2014.04.16.

【ABSTRACT】

Coordination, micro-foundation for dictatorial power

Han, Byung Jin | Keimyung University

Lim, Suk Jun | Dong-A University

Elite coordination is the micro-foundation for dictatorial power formation and consolidation. Reconceptualizing dictatorial politics as coordination processes and outcomes among elites, we can overcome the static nature of diverse dictatorship theories recently developed and propose a theory to fully accommodate the dynamics of dictatorial politics. Elites' convergent expectations and their interdependent choices guided by diverse focal points would determine the degree of personalization in dictatorships.

Key Words | coordination, dictatorial power, degree of dictatorial power, interdependence of choice, public opinion